

〈프프가무시증 예방 수칙〉

● 평상시/농작업 전

- 전용 농작업복 구비 및 작업 시 항상 착용
- 풀숲 제거 : 농경지 및 주변, 거주지 및 주변 등
- 진드기 기피제 보조 사용 : 농작업복에 도포

● 농작업 중 : 풀숲과 접촉 기회 회피

- 풀숲에 옷 벗어 놓지 않기
- 휴식 시 돛자리 사용
- 보조도구 이용 : 농작업용 앞치마 또는 방석
- 풀숲에서의 용변 금지

● 농작업 후

- 농작업복 일체 세탁하기 : 귀가 즉시 평상복과 분리 세탁
- 목욕 : 귀가 즉시, 입욕을 추천하나 샤워도 가능
- 적기치료 : 농작업 등 야외작업 수행 후 감기증상이나 가피(검은 딱지) 발견 즉시 꼭 의료기관 방문 치료

프프가무시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www.cdc.go.kr)

관련부서 연락처

감염병관리과(예방관리)
| 043) 719-7133, 7136

감염병감시과(의심환자 신고)
| 043) 719-7165, 7176

역학조사과(역학조사)
| 043) 719-7192, 7201

인수공통감염과
(프프가무시증 환자 진단)
| 043) 719-8461~2, 8475

질병매개곤충과(진드기 확인)
| 043) 719-8561~9



프프가무시증 Q&A

1 프프가무시증은 봄에도 걸리나요?

프프가무시증은 충청도 이남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에 의해 가을에 집중하여 발생하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대잎털진드기에 의해 봄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감기 증상이나 가피가 발견되면 프프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프프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

프프가무시증은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 때 발생합니다.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하여 유충으로 활동하며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11월)에 프프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3 프프가무시증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에서만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서 발생하기 쉬우나 프프가무시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4 가을철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프프가무시증에 걸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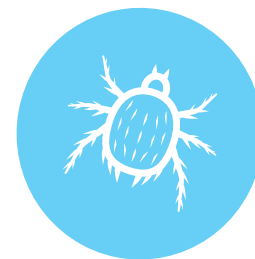
전체 털진드기 중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는 극히 일부로 진드기에 물린다고해서 무조건 프프가무시증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외활동 후 발열, 두통 등 감기증상이나 가피(검은딱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5 한번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나요?

프프가무시증에서 회복된 환자는 거의 재감염되지 않으나, 드물지만 이전과 다른 혈청형 균에 감염되었을 때는 재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프프가무시증에 걸렸던 사람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6 프프가무시증에 걸린 사람을 통해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프가무시균은 주로 털진드기를 매개체로 하여 전파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격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프프가무시증,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프프가무시증이란?

프프가무시증은 매개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을철(9월~12월)에 주로 발생하며,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다 사람을 물 때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킵니다.

프프가무시증 주요 매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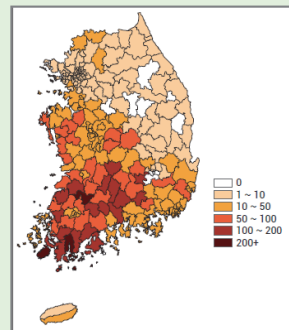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프프가무시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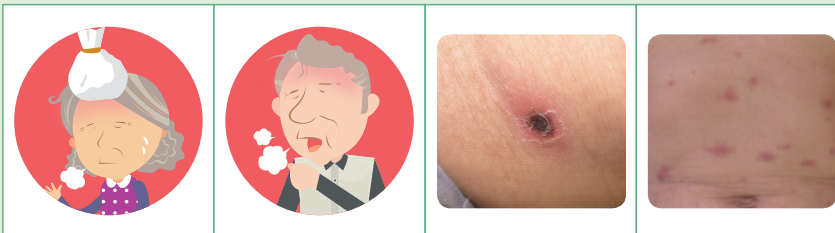


주로 전북, 전남, 충남, 경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가을철 수확기 농업 관련 작업(텃밭 채소작업, 콩 등 두류 수확작업, 깨 수확, 감이나 밤 따기 등)이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프프가무시증의 주요증상

프프가무시증은 1~3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 고열, 오한, 심한 두통, 근육통, 기침 등의 감기증상
-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 형성 - 복부 및 허리, 종아리·발, 가슴·겨드랑이, 허벅지 등
- 반점형태의 피부발진이 몸통과 사지에 발생



〈고열, 오한〉 〈기침〉 〈가피〉 〈발진〉

프프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능하며, 감염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 및 사망예방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할 수 있으므로 야외 작업 후 발열, 오한 등 감기증상이나 피부발진, 검은 딱지(가피)가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프프가무시증 예방수칙, 꼭 기억하세요!!

평상시/농작업 전



1.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전용 농작업복을 구비하고 작업 시 항상 착용합니다.

2. 농경지 및 거주지와 그 주변의 풀숲을 제거합니다.



〈텃밭〉 〈주거지 주변〉 〈농로〉 〈농경지〉

3. 진드기 기피제를 농작업복에 도포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농작업 중

-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말고, 휴식 시 돛자리를 사용합니다.
- 농작업용 앞치마 또는 방석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농작업 방석〉



〈돛자리〉

농작업 후



- 귀가 즉시 평상복과 분리하여 작업복을 세탁합니다.
- 귀가 즉시 목욕을 합니다.(입욕을 추천하나 샤워도 가능)
- 농작업 등 야외작업 수행 후 발열, 오한 등 감기증상이나 가피(검은 딱지) 발견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